

스크린·무대 오르는 오월 이야기

5·18 소재 영화·연극 제작 잇따라
송영창 주연 '기억하라' 12월 시사회
헬기기총소사 다룬 연극 각본 완성
'off the wall' 내년 공연 예정



오월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기억하라'.

단편영화 '기억하라', 연극 'off the wall' 등 1980년 5월을 주제로 한 영화와 연극이 잇따라 제작돼 화제다.

사단법인 광주영상미디어클럽과 희망문화협동조합은 6일 5·18 당시 고교생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계엄군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화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기억하라'를 제작해 오는 12월15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시사회를 열 계획이다.

이 영화는 광주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생은 나그네길' 영상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작됐으며 영화배우 송영창 씨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이 동참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만들었다.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영화감독인 이정국 감독이 폐가 문을 잡고 지난봄부터 촬영을 시작해 현재 후반 작업을 마무리했다.

"24분짜리 단편영화인 '기억하라'는 공수부대원이 5·18 당시 한 고등학생을 사살하고 무도산에 암매장해 죄의식으로 살아가다 양심 고백을 하고 암매장한 시신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영화가 완성돼 감회가 남다르네요."

이정국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는데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큰 동기가 됐다"며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과 달리 양심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2017년 5월 어느 봄날, 무도산 중봉 가는 길에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 인근 숲 속 여기저기를 파헤치며 뭔가를 찾는 청년 남자(공수부대 장교 출신)와 5·18 당시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선 치매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감독은 또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이라는 중편 다큐멘터리영화도 함께 제작중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억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와 배우들의 37년 전 5·18에 대한 각자 경험을 인터뷰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여기에는 최초 5·18 소재 극장 개봉 영화인 '부활의 노래'(1991년)를 제작한 이 감독의 인터뷰도 들어 있다.

5월 이야기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진다. 지난해 5월 연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무대에 올렸던 극단 금남로 작가 겸 연출 박진철은 80년 5월 전일빌딩 기총소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가까운 연극 'off the wall'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대본은 완성됐으며 배우들을 섭외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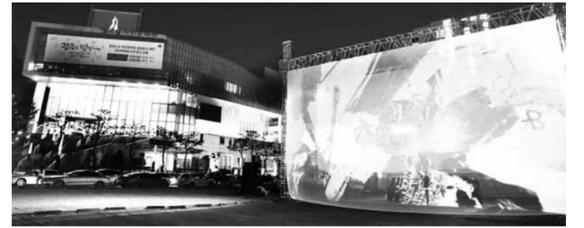
박 작가는 "광주 충장로우체국을 배경으로 5·18 당시

기총소사를 가장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며 "우체국 직원과 들불야학으로 활동하던 그 동생 등 등장인물을 통해 그 당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5·18 당시를 풍자적으로 풀어냈던 연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접한 많은 사람이 5·18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적인 모습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이후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 헬기기총소사에 대해 많이 다뤄지기도 해서 저 나름대로도 공부를 많이 했죠. 그날의 아픔과 광주를 폭력으로 삼켜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박 작가는 또 "연극 'off the wall'을 2018년 광주연극제에 출품할 생각이다. 이후 2018년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을 목표로 한다"며 "연극제를 통해 광주의 그날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16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 미디어아트 '부코디네이터 도시'로

창의도시 핵심 역할 주목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0월말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부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됐다 고 밝혔다.

이번 '부코디네이터 도시' 선정에 따라 광주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확대함과 동시에 창의도시 간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코디네이터 도시 선정은 지난 10월 신규 창의도시가 추가되면서 업무가 가중된 '코디네이터 도시'인 프랑스 앙기예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창의도시 간 투표와 유네스코 본부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말 최종 확정됐다.

향후 광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및 미디어아트 관련 분과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후보도시 평가 지원을 비롯한 모니터링, 차기 연례총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논의 및 선정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회원 도시가 주최하는 미디어아트 행사와 주제별 회의 운영 지원, 페이스북 행사 일정 공유 등 회원 도시 간 커뮤니케이션 관리, 도시별 특화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3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일원에서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2017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대 음악교육과 동문회 9일 음악회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동문회(동문회장 김유정)가 주최하는 '2017 동문음악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에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동문음악회는 조선대학교 설립 초창기의 문리과대학 음악과 출신 동문과 현재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출신 동문 모두가 함께하며 조선대학교 총동창회가 후원한다.

이번 공연에는 여성총장으로 소프라노 이하나, 구성희, 박경숙, 김선희, 박수연, 나혜숙, 임현진, 권효진, 김서진이 '러시아 민요' 등을 부르며 남성총장은 조영민, 김진우, 박승현, 정정호, 정명규가 출연한다.

또 김승일 작곡의 '이별'은 소프라노 박경숙이 노래하며 소프라노 김선희는 이수인의 '고향의 노래'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아리아 보석의 노래'를, 바리톤 김용원은 신동수의 '산아'와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로 나는 죽지만 행복하오'를 부른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작곡가 김승일 소프라노 이하나

피아노 듀오에 한근영과 김지영이 쇼스타코비치 콘체르티노를 연주하고 8현으로 연주하는 바흐의 '시실리아느'와 리스트 '헝가리안 랩소디 2번'에는 서영화, 구복희, 문마리아, 권성혜가 출연한다.

관현악 프로그램은 피아졸라의 '세계 중 겨울과 가을'을 바이올린 정수진, 첼로 이후성, 피아노박지현이 트리오로 함께하고 플루트 박주위는 이민주 반주로 존루터의 '고풍모음곡'을 연주한다. 문의 010-3625-5115.

전남 어린이소리꾼들의 강강술래 뮤지컬

11일 공연

전남도립어린이극단(책임 예술감독 김상유·사진)이 오는 11일 오후 5시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2017년 정기 공연 국악뮤지컬 '술래 술래, 술래야'를 공연한다.

'술래 술래, 술래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한 어린이극으로, 암 투병 중인 엄마의 치료를 위해 도시로 전학 온 강강이와 술래의 이야기다. 둘은 혼자의 생활이 익숙한 도시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공연 전 로비에서는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보이고 동심의 세계를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 및 문의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전화(061-980-9945)로 하면 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보이고 동심의 세계를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 및 문의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전화(061-980-9945)로 하면 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스리랑카 불교미술의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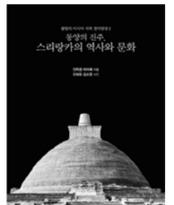
친독염 교수·허지혜씨 '동양의 진주...' 발간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스리랑카는 인도의 남쪽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극찬했으며 BBC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여행지 50 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러나 스리랑카를 소개한 책은 국내에 별로 없다.

전남대 건축학과 친독염 교수와 문화재연구소 허지혜 씨가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와 불탑을 소개한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심미안·사진)를 펴냈다. 그동안 전 교수는 인도의 불탑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를 연구했으며, 이번에 펴낸 책은 저자가 4년 전에 펴낸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에 이은 두 번째 저서다.

책에는 스리랑카의 자연환경과 역사, 불교전래와 남방 상좌부 불교, 다양한 문화와 불거리, 전통문화유산, 미불탑의 형식 등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와 문화 등이 두루 담겼다.

저자들은 불교미술을 이해하려면 불교사원과 그 안의 중심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불탑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교 건축의 한 분야, 다소 미시적인 불탑에 대한 관심은 큰 주제인 불교 미술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조로 된 유적은 잘 남아 있으나 벽돌로 조적된 불탑유적들은 대부분 최하부의 모습만을 확인하고 그 위에 새 연구유적, 이번에 펴낸 책은 저자가 4년 전에 펴낸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에 이은 두 번째 저서다.

책에는 스리랑카의 자연환경과 역사, 불교전래와 남방 상좌부 불교, 다양한 문화와 불거리, 전통문화유산, 미불탑의 형식 등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와 문화 등이 두루 담겼다.

저자들은 불교미술을 이해하려면 불교사원과 그 안의 중심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불탑을 이해해야 한다고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이룸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